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문예회관 세미나 개최

2009년 02월 11일 (수) 16:37:21

정훈영 기자 hjy@kihoilbo.co.kr

경기문화재단은 도내 문예회관들의 그간 성과와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과 특화'라는 주제로 13일 경기도문화의전당 2층 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문예회관 세미나를 개최한다.

11일 재단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문화재단 공동 주관으로 경기문화재단 권영빈 대표이사과 경기도문화의전당 박인건 사장을 비롯해 경기권 문예회관 종사자, 시·군 문예회관 건립·운영 관련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문예회관들이 최근 지역 브랜드 이미지 부각을 위해 경쟁적으로 개관해 급격히 증가하는 전문 인력과 예산 증가에 비해 지역 수요 파악 없이 접근한 한계와 과제를 지적하고, 도내 문화환경과 문예회관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방향과 위치를 제안한다.

또한 문화예술 창작·보급을 통한 지역문화 정체성 형성 역할과 특화를 위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1주제 '경기도 문화환경과 문예회관의 변화'는 정광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제2주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예회관의 역할'에 대해서 이진배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제3주제 '경기도 문예회관 콘텐츠 생산 활성화 방안'은 구자흥 명동정동극장 극장장, 제4주제 '경기도 문예회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은 박인건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열릴 종합토론에서는 강석흥 고양문화재단 본부장의 진행으로 정중헌 서울예술대학 교수, 조경환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연기획팀장, 박만진 하남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팀장 등이 참여해 실질적인 질의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내에 등록된 공공 공연장 수는 공공 85개, 민간 24개 등 총 109개로 이 중에서 문예회관으로 분류되는 곳은 24개소 48개 공연장이다.